

보안뉴스 미디어

인터파크 오픈마켓에서 물건 팔려다 ‘탈탈’

2013-10-11

이름, 아이디, 메일주소만 알면 해킹돼...인터파크, 긴급 조치 취해

[보안뉴스 김지연]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서 이름, 아이디, 메일주소만 알면 쉽게 해킹이 가능해 문제가 됐다.



해당 문제점을 제보한 유민상 씨는 “비밀번호를 찾다가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 중 ‘등록한 e-mail 주소로 비밀번호 찾기’ 부분에서 해킹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해 제보하게 됐다”며, “‘등록한 e-mail 주소로 비밀번호 찾기’ 기능은 이름, 아이디, 메일주소만 알면 누구나 쉽게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”고 전했다.



▲문제가 된 ‘등록한 e-mail 주소로 비밀번호 찾기’ 기능

또한, 그는 “인터파크의 오픈마켓 판매자의 경우에는 이름과 메일주소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, 메일주소로 아이디를 유추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”며, “새로운 이메일주소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기능을 제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 본인 확인 후 다른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전했다.

🔒 비밀번호 찾기

▶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.

회원님께서 가입 시 등록하신 메일 주소
 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 받으시겠습니까?

문제가 되는 부분



새로운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발급 ▶

▶ 새로운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 받고자 하시면,
 해당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.

▲아이디, 이름, 등록한 이메일 주소만 알면 본인확인이 안된 다른 메일주소로 임시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음

한편, 본지는 해당 문제점을 인터파크에 알려 조치토록 했으며, 인터파크 측은 ‘새로운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발급 기능’을 제거하는 등 해당 문제점을 즉시 보완했다.

인터파크와 유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[김지언 기자(boan4@boannews.com)]

<저작권자: 보안뉴스(<http://www.boannews.com/>)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